

아름다운 음색, 조화로운 선율 '프로방스 색소폰앙상블'

1840년경 제작된 색소폰은 현대 관악기 중에서도 발명 시기가 늦었지만, 오케스트라나 재즈 등 여러 장르에서 활용될 만큼 아름다운 음색을 자랑한다.

그럼에도 아마추어가 아닌 전공자라면 구성된 '색소폰 단일악기 앙상블'을 지역에서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톤과 스케일, 호흡 등 연습해야 하는 기술이 많고 다이내믹의 처리, 애드리브 등 즉흥적 표현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색소폰 앙상블이 첫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끈다. 오는 2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에 오르는 프로방스 색소폰앙상블(대표 윤주승·프로방스)이 그 주인공, 이들은 '프로방스 앙상블'을 주제로 연주회를 펼친다.

윤 대표는 "프로방스는 광주, 전남에서 활동 중인 색소폰 전공자들이 모여 2021년 창단한 팀"이라며 "지역에서 색소폰 음악의 한계와 정형성을 탈피하기 위해 졸업생, 재학생들이 모여 레퍼토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색소폰은 음악사적으로 낭만시대 후기에 만들어졌기에 바로크·고전·낭만시대 곡이 부재하다. 그런 연유에서 대중에게 익숙한 헨델,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선율은 색소폰으로 듣기 어려운 실정이다. 프로방스는 색소폰의 '무한한 가능성'과 '이국적인 음색'에 주목, 근현대 및 인상주의 작곡가들이 재해석한 레퍼토리를 연구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면면도 이채롭다. 지역 예술단체인 마제스틱 윈드오케스트라, T.O.P 콘서트밴드,



프로방스 색소폰 앙상블이 오는 21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첫 정기연주회를 펼친다. 왼쪽부터 윤주승, 이승욱, 서영교, 유지은, 이경호, 장우영, 김호영. <프로방스 제공>

CNS 윈드오케스트라 등에서도 활동 중인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색소폰 음악의 활성화'라는 기치 아래 프로방스로 모인 것.

전주대 음악과에 재학 중인 박민근(알토), 전남대 음악학과 재학생 조정우(테너)부터 목포시립교향악단 단무장을 맡고 있는 김호영(바리톤), 전남도립대 및 광주교대 등에 출강 중인 윤주승(소프라노)까지 구성원 스펙트럼도 넓다.

윤 대표는 "물론 색소폰 음역대 별로 소리가 나뉘지만, 단일악기 앙상블의 음악적 목표는 '하나의 조화로운 소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호흡과 피치, 음고 등 섬세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광주·전남 활동 전공자 2021년 창단 첫 정기연주회 21일 광주예술의전당 예술적 가능성 모색·저변 확대 노력

그러면서 "색소폰 앙상블은 장단점이 극명하지만,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소리가 어우러질 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다른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때와 다른 감각을 선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차르트 곡 '피가로의 결혼 서곡'으로 막을 여는 이번 공연은 홀스트의 '행성 모음곡' 중 '목성-즐거움을 가져오는 자'로 이어진다. 홀스트의 행

성 모음곡 중에서도 유포테르 로마 신화와 연결된 곡 '목성'은 가장 스케일이 크고 웅장하다.

탱고 마스터인 피아졸라에게 헌정된 몰리넬리의 '뉴욕에서 온 네장의 사진' 중 2악장 '탱고 클럽'도 레퍼토리에 있다. 전남대 음악학과 및 파리시립음악원 등을 졸업한 윤주승 대표가 솔로 연주할 예정이다. 윤 대표는 한국창의예고 강사를 역임했으며 The Bros Combo 밴드 대표, T.O.P 콘서트 밴드 단무장 등을 맡고 있다.

벨기에 작곡가 앙드레 웨이그네인의 '색소폰의 색깔들'도 울려 퍼진다. 라틴계, 낭만주의 등 색소폰의 다양한 음악적 측면을 부각시킨 판타지 작품이다. 저스틴 허위츠의 '라랜드 셀렉션', 요시다

우치다가 편곡한 '글렌 밀러 메들리'로 대미를 장식한다.

소프라노 색소폰은 호신대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유지은, 전남과학대 음악과 출신 이승욱이 맡는다. 광주 세계청년축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서 브라스 세션으로 참여한 서영교, 박민근이 알토 색소폰을 연주한다.

광주 전국음악경연대회에서 대학부 입상한 이경호(목포대 음악학과 졸)와 조정우는 테너 색소폰 선율을 더한다. 이 씨는 광주 전국음악경연대회에서 대학부 입상했으며 마제스틱 윈드오케스트라 단원 등으로 있다. 아울러 조 씨는 광산대, 안양대, 전주대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T.O.P 콘서트 밴드 맴버다.

김호영은 바리톤 색소폰의 선율을 더한다. 환상의색소폰사운드 대표인 김 씨는 (사)한국색소폰협회 목포지부 사무국장이며 현재 목포대 겸임교수, KBA 관악회회 목포지부장 등을 맡고 있다. 장우영(광산대 음악과 재학·바리톤색소폰) 씨 또한 CNS윈드오케스트라에서도 활동 중이다. 퍼커션에 김기수(전남대), 드럼은 박지훈(광산대).

윤 대표는 "전공자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앙상블을 꾸려 색소폰 레퍼토리 확장 및 인재 육성의 '산실' 역할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이번 첫 정기연주회를 발판 삼아 지역 클래식 색소폰의 저변 확대와 예술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팀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석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9월 가을 소풍'

내일 광주삶디자인센터 앞마당

인스타그램 그리기 및 코바늘 뜨개를 배우는 '원데이 클래스', 버터나이프 깎기, 쿠키 아이싱 등으로 구성된 '오픈 클래스' 등 다양한 창작활동으로 구성된 행사가 펼쳐진다.

광주삶디자인센터(센터장 박형주·삶디자인센터)가 '9월 모두의 창작·가을 소풍 편' 행사를 오는 21일 오후 3시 삶디자인센터 앞마당에서 개최한다. 매일 삶디자인센터 공방에서 열리는 원데이 클래스로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드는 활동으로 채워진다.

먼저 '원데이 클래스'라는 주제로 두 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스타그램 그리기'와 '네일 클로버 키링 만들기'가 그것이며 14~24세 청소년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총 2시간~2시간 30분 소요, 25세 이상은 참가비 5000원.)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가 가능한 '오픈 클래스'도 있다. 비건 쿠키 아이싱 만들기, 비누를 미니어쳐 고양이 피규어 도색하기, 매듭 팔찌 만들기, 나무 버터나이프와 젓가락 만들기, 캐리커처 그리기, 우쿨렐레 배우기 등 8개 클래스가 준비돼 있으며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삶디자인센터 청소년 뮤지션들이 준비한 미니 버스킹 공연, 릴레이 시 쓰기, 소금빵 및 구운 과자를 판매하는 공유 부엌 실험프로젝트 등이 마련된다.

삶디자인센터 한선미 팀장은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청소년,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을 가듯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나 손으로 직접 만든 물건의 가치를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 모두의창작 링크로 온라인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박영애 작 '생명 24'

한·일 현대미술 '자유로운 대화'

10월 13일까지 남포미술관

한국과 일본을 말할 때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한다. 지리적으로 근접했지만 심리적으로 어느 나라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정치적, 역사적 맥락의 관점에서는 결코 가까울 수 없는 관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술적 관점은 다소 다를 수 있다. 예술은 만국의 공통어이자 상대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중견, 원로작가들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



오나리 메구미 작 'Memories of flowers'

길을 끈다.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에서 오는 10월 13일 까지 열리는 기획전 '한·일 현대미술 교류전-자유로운 대화'는 양국 현대미술의 흐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전남도와 (재)전남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열리며 박영애, 윤길영 등 ICA 국제현대미술협회 작가 27명과 스즈키 야스오, 아키야마 토시오 등 일본 살롱블랑 미술협회 작가 14명이 참여했다. 회화를 비롯해 사진, 판화 등 다양한 장르 40여 점을 출품했다.

관형수 남포미술관장은 "이번 교류전 '자유로운 대화'를 매개로 양국 미술인들이 예술적 영감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향후 한·일 양국 간 문화교류와 창조적 대화와 비전 또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에서 말하는 광주 이야기'

'이미지와 함께 걷기' 북 토크...21일 독립서점 소년의 서

"지역의 연구자이자 비평가로서 내가 사는 광주를 낯설게 바라볼 때 '광주'에 입혀진 이미지 그리고 거기서 이탈하는 이미지들이 나타난다."

광주 출신 김서라 연구자는 자신의 저서 '이미지와 함께 걷기' (민음사)에서 그렇게 말했다. 광주 출신으로 광주에서 나고 자란 연구자인 그에게 광주의 특정 이미지들은 남다른 모습으로 각

인돼 있다. '이미지와 함께 걷기' 출간 기념 북 토크가 열린다. 오는 21일(오후 5시) 독립서점 소년의 서에서 펼쳐지는 이번 북 토크 주제는 '광주에서 말하는 광주 이야기'. <사진>

북 토크는 김세영 민음사 편집자 사회로 진행되며 "민주, 인권, 평화라는 가치가 어느덧 자본



에 포획되어 버린 도시 풍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이다.

특히 근대와 현대 사이의 광주, 항쟁의 도시 광주뿐 아니라 여성과 공간의 문제도 다룬다. 곧 사라질 방직공장에 얽힌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자취와 저항의 흔적도 토크에 예정이다.

독립기획자인 소년의 서 임인자 대표는 "우리 시대의 보편 가치인 민주와 인권, 평화가 자본에 의해 포획돼 버린 상황에서 광주 출신 김서라 연구자가 광주 이미지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풀어낸 책은 깊은 생각거리를 준다"며 "관심있는 독자들이 참여해 광주와 광주 이미지를 함께 사유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의: 소년의서.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